

전농 탐구

자주평등통일0615

1990년 4월 17일 결성한 전농부산경남연맹, 그리고 일주일 후인 4월 24일 출범한 전국농민회총연맹.

올해 30주년을 맞이하여
지난 날을 기억하며 전농 탐구 중입니다.

10년 전 전농 20년사 책자에 실린 것발 소개, 깊은 뜻을 다시 헤아려 봅니다.

당시 20년사 편찬위원장이셨던 고 정광훈 의장님의 편찬사대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전농답게 갈 길을 가겠습니다.

"전농은 농업문제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까지 변혁의 길에서 중심역할을 해왔습니다. 인류존엄과 행복한 사회건설을 위한 농민운동을 할 것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 '고급정치'를 지향하며 질 높은 사회운동이 될 수 있도록 복무할 것입니다." - 고 정광훈 의장님 전농 20년사 편찬사에서

전농 1990~2020



깃발에 담긴 철학



삼천리 방방골골~



바탕색(하늘)은 남북단일기 색으로
통일농업을 향한 전농의 의지를 뜻함

외각으로 이어지는 타원형은
온갖 곡식의 씨앗, 생명을 뜻함

농민의 깃발이여~



나락 알곡의 개수는 남북한 도의 총수와 같고,
전농의 통일 의지와 전국의 대표성을 의미함

단결된 농민의 손으로 나락을 부여잡고
이 땅의 농업을 지켜내기 위해 진군하는 형상

삼천리 방방골골~농민의 깃발이여~



상징 문형과 로고는
백색으로
농민을 상징



**30년,
농민해방 외치며
전농의 깃발아래
단결하고 또 단결하여
춤추고 싸운
농민형제들...**

-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로 힘차게 진군하여라